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12.16.(토) ~ 2018.1.12(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Times-SLC라는 어학원에 파견되었으며, 이곳은 시내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숙소는 3인 1실이며, 침대와 책상, 옷장이 모두 있습니다. 가끔 방에 개미와 도마뱀이 나오지만 익숙해집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도착한 다음 날 레벨테스트를 통해 그룹을 나누게 되며, 이후에 선생님도 각각 배정이 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8번의 수업을 들으며,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50분 동안 수업을 하고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1:1과 그룹 수업 둘 다 하루 4번씩 수업이 진행되며, 토익 스피킹, 단어 수업, MMC 등이 있습니다. MMC 수업은 다양한 뮤직비디오와 commercial(광고)를 보고 토론하는 수업이며, 이 수업을 바탕으로 그룹별로 자신들만의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소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그룹 사람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첫 액티비티로는 요트투어를 했습니다. 학원에서 꽤 가까이 있는 곳이었으며, 요트 하나를 빌려 탄 것이라 편안하게 투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리탑 어드벤처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는 학원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게 된 활동입니다. 이곳에서는 번지드롭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타려는 개수마다 패키지 가격이 다르며, 적혀있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받으니 여분의 돈을 더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바야코브 리조트를 다녀왔습니다. 700페소 정도 들었으며, 수영복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이곳은 회원제 리조트이기 때문에 2개의 카드로 26명이 나눠서 결제를 해야 했으며,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리조트 안에 있는 식당의 기본 가격을 알지 못해 리조트 비용과 식비로 미리 1000페소를 걷었는데, 두 곳의 식당 모두 700~800페소 정도의 가격이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었습니다. 1500페소 정도 미리 걷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밖을 나갈 때는 반팔, 반바지를 입을 정도의 날씨인데, 주로 수업을 듣느라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얇은 긴팔이나 얇은 겔옷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마트나 식당을 들어갈 때마다 가방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나름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다만,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곳은 위험할 수 있으니 최대한 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방 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에 숙소는 매우 청결했습니다. 또한 빨래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점호는 10시에 했으나, 다음날 수업이 없는 경우에는 12시에 점호를 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과 점심은 주로 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다른 곳에 나가서 먹었습니다. 주로, 학원에서는 한식이 나와 입맛에 잘 맞으며 맛있었습니다. 외부 식당으로는 텍사스 조와 코코라임을 추천합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FB라는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했으며, 숙소 바로 앞에서 FB를 탈 수 있으며, 이를 타고 하버포인트를 갈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탈 수 있다

	는 것이 장점입니다. 가끔 FB가 안 올 때는 택시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택시를 타고 싶다면 가드나 매니저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3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경비	450,000	식비, 액티비티 비용 등
합계	1,089,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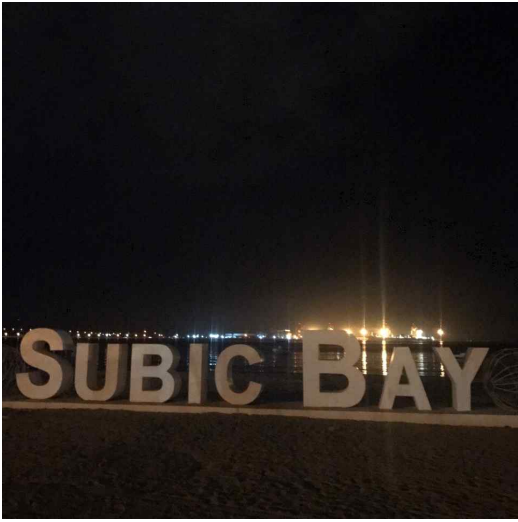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반팔, 반바지를 주로 챙기면 되고, 슬리퍼도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로 동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전지갑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과의 마지막 수업에서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가지 못해서 필리핀 현지물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필리핀 사람에게 그 나라의 물품을 선물해 주는 것이 조금 아쉬워 미리 한국의 물품을 준비해간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단기어학연수를 다녀오기 전에는 하루 종일 영어 수업을 들어야한다는 것에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나 4주를 잘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선생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신 덕분에 영어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교재 이외에도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한 달 동안의 수업으로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어로 하루 종일 말해볼 기회도 없었고, 완벽하지 않은 말하기를 바로 무엇이 잘못된 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더욱 완성도 높게 말을 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려 했었는데 하루 2번의 수업을 통해 어떤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서 이 수업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추억을 많이 쌓은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4주가 빨리 지나간 것은 아쉽지만 필리핀을 다녀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도 선생님들,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낼 정도로 그곳에서의 추억이 너무 그립습니다. 단기어학연수는 지금껏 해 본 학교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으로,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

로 이번 방학에 토익 스피킹 시험에 응시해볼 계획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어학원 앞 수영장	수빅베이
	
요트투어	트리탑



마닐라



안바야코브 리조트